

## [영화 감상문] 영화 ‘D-13’을 보고

1962년 10월 16일 미국의 정찰기(U-2)가 쿠바상공을 정찰하고 돌아온다. 이 정찰기가 찍어온 사진을 판독한 결과 쿠바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 이 미사일은 SS-4로 3메가톤의 핵탄두를 설치할 수가 있으며 사정거리는 천 마일로 32기가 배치되는데 사정거리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포함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위기에 휩싸이게 되는데, D-13은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긴박했던 13일간의 시간 즉 1962년 쿠바사태를 영화 한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크게 두 개의 대결구도가 형성된다. 이 때의 두 개의 거대세력 즉, 소련과 미국의 대결, 그리고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면서 소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의해 미정부내에서 온건파인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F. 케네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케네스 오도넬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강경파인 군부로 갈라진다. 온건파의 생각은 3차 대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양보를 통해서라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위기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강경파의 생각은 제 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고라도 미국의 힘을 보여주어 소련을 응징하자는 생각이다. 이 영화는 이러한 두 개의 대결구도 중 후자에 훨씬 비중을 두어 미국 정부 내에서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당시 쿠바 상황을 보면 민족주의자인 피델 카스트로가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였다. 카스트로는 1953년 훌렌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정권을 전복하려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수감되었고, 석방 후에 멕시코로 망명했다. 1956년 후반 카스트로는 귀국했고, 체포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도피했다. 대중의 지지를 얻고 게릴라 세력을 증대시키면서 그는 1959년 미국이 지원하는 바티스타 정권과 싸워나갔다. 1959년 1월 그의 권력획득을 좌절시키려는 미 중앙정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가 이끄는 군대는 아바나로 입성하여,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래 광범위하게 발전해온 미국의 쿠바에 대한 설탕, 광산 시설 산업들의 지배를 축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 카스트로가 실시한 토지개혁은 미국의 이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고, 바티스타 지지자들의 처형은 미국의 영향을 감소시켰다. 카스트로는 바티스타를 지지하였던 미군을 쫓아버리고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혁명을 원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존 F. 케네디가 등장했다. 그는 뉴프런티어 정신<sup>1)</sup>을 슬로건으로 공화당의 닉슨을 간발의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

1) 대통령 취임 후에도 내외정책의 기본정신으로 삼았다. 개척자 정신의 상징인 프런티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국내문제의 개선과 해외의 후진지역에 대한 민주주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D.D.아이젠하워 시대의 침체된 정치에 실증을 느끼던 많은 미국 청년들이 이에 호응하여 세계를 향한 평화부대들이 생겨났지만, 국내정책은 국회의 반대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된다. 그리고 1961년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케네디는 그 전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소련과의 원자무기 전략보다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원했다. 따라서 제 3세계의 역할을 중요시했는데, 특히 진보 동맹(Alliance for Progress)<sup>2)</sup>을 제안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간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계획들로, 그 지역 국가들의 평화로운 발전과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꾀하고, 카스트로류의 운동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케네디는 또한 해외원조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개발국(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대중적 혁신 중의 하나가 된 평화봉사단(Peace Corps)<sup>3)</sup>을 만들었다. 그것은 미국의 젊은 자원자를 해외의 개발도상 지역에서 일하게끔 파견했다.

케네디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최초의 모험 중의 하나는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에 대한 불행한 공격이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그 계획을 기안했으며, 케네디 때 중앙정보부는 여러 달 동안 중앙아메리카의 반카스트로 쿠바 탈주자들로 구성된 소수의 군대를 훈련시켰다. 1961년 4월 17일, 새 대통령의 동의하에 2천 명의 무장 망명자들이 쿠바의 피그즈 만(Bay of Pigs)에 상륙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국 공군의 지원과 다음으로는 쿠바 국민들의 자발적인 봉기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것이 명백해지자, 케네디는 침입에 미국이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두려워해 공군의 지원을 취소해 버렸다. 기대했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잘 무장된 카스트로 병력이 쉽사리 침입자를 분쇄했으며, 이틀 이내에 전체 임무는 실패로 끝났다.

이런 와중 1961년까지도 당시 공산주의가 뒤덮고 있던 동유럽에서 마치 섬처럼 떨어져 있던 서베를린으로 동독의 시민들이 탈출을 계속해서 감행함에 따라 1961년

2) 미국 대통령 J.F.케네디가 제창하고 1961년 8월 미주기구(美洲機構:OAS)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하였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10년 동안에 200억 달러의 경제원조와 민간투자를 제공하는 대신 중남미 제국(諸國)에 대하여 스스로 생활수준의 향상, 물가안정, 주택개선, 문맹의 일소, 공업화의 촉진 등을 실행할 의무를 지웠다. 본래 이 계획은 중남미 여러 나라의 정정(政情)을 안정시켜 쿠바혁명의 영향이 다른 나라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후에 쿠데타가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3) 개발도상국의 교육·농업·무역·기술의 향상, 위생상태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미국정부가 국내에서 모집한 청년 중심의 봉사자를 훈련·파견하는 단체이다. 1961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뉴프런티어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평화봉사단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활동목표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돕는 것,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미국인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 봉사를 통해서 미국인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에 둔다. 활동 분야는 환경 분야, 어린이 교육분야, 중소기업 분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퇴치 등 다양하다. 평화봉사단은 활동 초기에는 미국의 대외침략의 선봉이자 스파이라는 오해로 인해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도 있었으나, 이후 봉사자들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케네디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8월 13일, 동이 트기 전 소련은 동독으로 하여금 동서 베를린 사이에 장벽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여 탈출을 막았다. 수비대는 계속해서 탈출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 거의 30년 동안, 베를린 장벽은 공산세계와 비 공산세계간의 갈등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물리적 상징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어 가던 동·서간의 대립은 1962년 10월이 되면서 최고조에 이르고 이렇게 최고조에 오른 시기가 배경이 되어 제작된 영화가 바로 D-13이다.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미정부, 특히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법무장관과 케네스 오도넬 특별보좌관을 중심으로 국가비상대책위원회(ExComm)<sup>4)</sup>를 소집한다. 여기서 대책을 강구하지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기만 할 뿐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는다. 한편 군부는 소련의 태도를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제 3차세계대전을 감수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케네스 오도넬 보좌관은 그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면 공군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정찰을 시도한다. 오도넬 보좌관은 정찰기의 조종사와의 통화를 통해 절대로 격추당하지 말라는 부탁을 한다. 거기서 케네디 대통령의 의리를 강조한다. 결국 많은 충격을 받지만 그 조종사는 무사히 돌아오고 비행기의 무수한 총알자국에도 불구하고 참새 때에 의한 습격이라고 말하며 쿠바의 충격을 말하지 않음으로 전쟁으로 갈 수 있었던 한 번의 위기를 넘긴다. 하지만 그 정찰의 결과로 처음에는 32기였던 미사일이 40기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사정거리도 미국의 전역이라는 것이 추가로 밝혀지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의 시민들은 많은 동요를 일으키고, 미국의 힘을 보이자는 군부의 의견이 더욱 힘을 얻게 된다. 결국 케네디 대통령은 공습과 봉쇄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으며 결국은 쿠바로 행하는 선박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무기를 선적하고 있는 선박은 다시 돌려보낸다는 해상 봉쇄령을 발표한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10월 26일 ABC방송의 뉴스 기자인 존 스칼리는 소련의 워싱턴 주재 소련 비밀경찰인 알렉산더 포먼이 소련의 미사일 기지에 설치하는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고 철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에 대한 진위논쟁이 있었지만 오도넬 보좌관은 그가 흐루시초프와 같은 곳에서 같은 기간동안 근무했던 전우였음을 알아내고 협상은 급속도로 진행된다. 이 와중에 UN대사로 파견되어 있던 스티븐슨은 로버트 케네디의 교체 의사에도 불구하고 UN 가입국가들에게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고 UN의 의사가 미국쪽으로 오게 하였다. 10월 27일에 미국의 정찰기가 격추되어 조종사가 사망하고 소련에서 새로운 전함이 날아오면서 상황이 다시 급박해진다. 그 전함의 내용은 소련이

---

4) 대략 15명 정도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주요인물은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맥나라마, 러스크, 국무차관 볼, 부차관 존슨, 톰슨, 국방부 부차관보 길 패트릭과 니체, 중앙정보부장 맥콘, 번디, 에치슨, 로버트, 그리고 스티븐슨 등이었다.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터키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케네디는 흐루시초프 역시 군사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을 소련 군부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답신에 미국은 절대로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터키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는 할 수 있지만 여론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6개월 안에 철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만 만일 이 내용이 언론에 밝혀질 경우는 철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10월 28일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미국의 조건을 수락한다고 밝히면서 이 영화의 주제가 된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해소된다.

<LA 타임즈><뉴욕 타임즈><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저명 언론들은 D-13을 역사를 새롭게 재현한 지적이고 강렬한 드라마라고 치켜세웠고, 그 당시 케네디 형제의 절묘한 전략묘사를 극찬했다. D-13은 케네디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으며, 케네디 암살의 발단이 된 사건을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의 재임 당시 특별 고문이었던 티어도르 C. 소렌스는 “D-13은 제 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낸 드라마이며 현 지도자들이 몇 번이고 다시 봐야 할 교과서적인 영화”라고 평가했다. 이런 사실을 입증이나 하듯이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처음 관람하는 작품으로 D-13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의 배경이 되는 쿠바 및 러시아에서 특별 상영되는 이례적인 행사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쿠바에서는 그 당시 역사적 인물이었던 카스트로 위원장과 사건을 책임졌던 정부 인사들이 동석하였고, 그곳을 방문하였던 케빈 코스트너는 1959년 쿠바혁명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쿠바 땅을 밟은 미국 배우가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국제 평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미국 무기전문가의 참석아래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지구상의 핵무기 위기를 반추해보는 토론을 갖기도 하였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D-13은 많은 제작비를 들여 1962년 상황을 실감나게 전달 해주었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이 영화는 2000년에 제작되었다. 즉 쿠바 미사일 위기는 웬만한 젊은 관객들이 태어나기도 전의 사건인 것이다. 냉전이란 용어 자체가 이들에게 어필하는 크기는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로저 도널드슨 감독은 소련과 미국의 대립구조보다는 미국내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구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중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로 대표되는 온건파의 손을 들어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헐리웃 영화처럼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고민한다. 그리고 전쟁도 불사하려는 군부강경파는 반휴머니스트로 외교적 타협을 주장하는 케네디 형제와 오도넬 등의 온건파는 휴머니스트라는 등식도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영화는 이러한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미국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발견하기 전까지의 배경을 전부 생략하고 미국의 코 앞인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소련과 쿠바의 잘못을 부각시

키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국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쿠바라는 지역에서 불거져 나온 핵위기를 세계 평화라는 문제로 풀어낸 것은 모두의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너무 버거운 점이 아니었을까? JFK에서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교차해서 보여준다. 암살자 오스왈드에게 훈장을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당장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피그만 침공 때 공군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자유쿠바인 2천 여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힌 것에 비난을 하는 것도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케네디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이 세계의 평화만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앨런 브링클리, 『미국인의 역사3』, 황혜성 역(비봉출판사, 1998)

로이드 젠슨, 『외교정책의 이해』, 김기정 역(평민사, 1999)

퀴크 로버트 E, 『피델 카스트로』, 이나경 역(홍익출판사, 2002)

디데이 13 공식 홈페이지 <http://d-13.cinelove.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http://www.nkino.com>